

교회 소식

1. 환영합니다

- 언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
-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**우리교회는 어린 아가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.**
 조금 소란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급적 앞좌석에 앉아서,
 좀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.

2. 광고

- ① 올 한해, <예배와 말씀> 가운데 살아갑시다.
 아침예배 설교 음성화일을 홈페이지에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.
 잘 활용해서, 날마다 예배와 말씀듣는 생활을 합시다.
- ② 설 연휴 기간입니다. 어디에 있건, 항상 예배드리는 성도가 됩시다.
- ③ **이번 주간(월-금)은 아침예배를 쉽니다.**
금요일 저녁 기도모임도 한주 쉽니다.
- ④ 오늘은 주일오후 모임 및 주일학교를 쉽니다.
 오늘은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⑤ 주중에 1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.
- ⑥ 설 명절을 맞아 교회에서 어르신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

온라인
연금

국민은행 206001-04-148 682 (예금주/언약교회)
 신한은행 100-032-008 667(예금주/언약교회)
 우리은행 1005-901-708 982 (예금주/언약교회)
 우리은행 1005-202-531 785 (예금주/언약교회)
 농협 355-0070-8191-13 (예금주/언약교회) 신협 131-021-333882 (예금주/언약교회)

봉사
안내

	이번 주(1/26)	다음 주(2/2)
설거지	없음	김성현, 김명중, 박지상
오후통독	없음	김재훈(요한계시록 18-19장)

대한예수교
장로회 **언약교회**

COVENANT COMMUNITY CHURCH

섬기는 이 / 목사-조호진, 류재권 / 전도사-김숙영, 김현선
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48길 56 현대아파트상가 3층
 ☎0507-1358-7760 <http://www.unyak.org> <제27-04호 / 2025년 1월 26일>

말씀이 깊고 풍성한 교회

은 성도가 믿음과 섬김으로 "제자삼는 제자"가 되는 교회



(반 고흐 - field with irises near arles)

주일	유·초등부	오후 1시 30분
	중·고등부	오전9시45분 / 오후 1시
	주일예배	오전11시 // 오후1시30분
주중	<아침예배>	오전9시30분(월-금)
	성경공부	<수, 목, 토> 정해진 시간

주일 예배 순서

인도 : 조호진 목사

-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일어서서
- 사도신경 일어서서
- 회개와 감사 기도 일어서서
- 찬양 찬송가 407장 "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" 다함께
- 대표기도 윤지영
- 성경봉독 다니엘 6장 1-18절 말씀 이명규
- 말씀 『**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**』 조호진
- 결단의 기도 다함께
- 광고 및 성도의 교제 다함께
- 찬양 "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" 다함께
- 축도 조호진 목사

- ▣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
- ▣ 예배 후 점심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

예배 위원	다음 주(2/2)		2주 후(2/9)
	대표 기도	박민서	조의진
	성경 봉독	조의진	문수선

성경 본문 다니엘 6장 1-18절 말씀(개역개정판)

<1>

- 01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
- 02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던라
- 0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
- 04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,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
- 05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
- 06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
- 0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
- 08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
- 09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

<2>

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

<3>

①

11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

②

13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14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

③

15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16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

④

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7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18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